

Japan Weekly Digest

2012. 4. 7 ~ 2012. 4. 13

① 주간 경제 초점 : 일본경제의 회복국면 진입과 과제

- 지진복구의 본격화에 따른 파급효과
- 기업들의 성장투자 회복
- 엔고세 약화 등 수출환경 호전
-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가
- 경기회복의 복병과 과제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일본 정부·은행, 성장지원책 강화
- 자동차 업계, 코스트 절감에 필사의 노력
- 소니, 1만명 감축과 「탈TV경영」으로 돌파구 모색

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대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① 주간 경제 초점 : 일본경제의 회복국면 진입과 과제

-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수요, 엔고의 약화 등에 힘입어 일본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이나, 향후 유가 상승이나 전력부족난 등의 리스크를 극복, 자율적인 회복궤도에 정착할 수 있을지가 주목 포인트

□ 지진복구의 본격화에 따른 파급효과

- 공공사업 등 지진피해복구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진피해지역은 물론, 멀리서일본지역에까지 부흥수요의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음
- 다만, 공공수요의 성격이 짙은 부흥수요가 금년 4~6월을 피크로 서서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수요에 의한 대체가 필요한 상황

□ 엔고 약화 등 수출환경 호전

- 두 가지 면에서 일본의 수출환경이 호전되고 있는데 이중 하나는 엔고의 약세임
 - 작년 가을 일시적으로 달러당 75엔대까지 급등했던 엔고세가 최근 약화됨에 따라 금년 2월의 수출수량지수가 전월수준을 4%정도 상회, 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엔고 약화에 따른 수출환경의 호조는 수출기업들의 성장투자 확대에 이어짐
 - 도레이의 경우 열연강판의 생산능력을 50% 증강시키기 위한 투자확대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아사히가세이는 미국기업 등의 대형 M&A에 나서고 있음
- 다른 하나는 일본경제 회복의 버팀목인 미국경제의 호조에 따른 대미수출 환경의 개선임
 - 최근 미국경제는 고용사정의 개선과 함께 GDP의 70%를 점하는 소비의 호조로 특히, 일본의 수출관심품목인 백색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기업들의 성장투자 회복

- 3월 일본은행 단기관측조사(단관)에 의하면 금년도 대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전년도 대비 3.6%증가로 작년도의 2.7%를 상회하여 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설비·인력 투자를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가상승이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는 점임

□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가

- 소비 측면에서는 가격보다도 만족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점이 소비활성화는 물론 디플레이 탈피에도 기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체소비가 늘고 있다는 점임. 다만 이를 통하여 소비가 한층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회복이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을 통하여 가계에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개혁으로서 재정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이 중요함

□ 경기회복의 복병과 과제

- 그러나 현재 엔화환율은 낙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특히 조립가공형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엔고 경계감을 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부품메이커들이 일본 내에 잔류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원전 재가동 문제나 소비세증세 문제가 매듭지어져, 가계와 시장의 장래불안이 완화되는 동시에, 금융완화를 통하여 엔고 방지와 소비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경기회복의 대전제가 되기 때문임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일본은행, 성장지원책 강화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0~0.1%의 사실상 제로금리정책과 65조엔의 자산매입기금 규모 등 현행 금융정책을 유지하기로 함
 - 자산매입기금이란 단기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금융완화를 목적으로, 장기 시장금리의 하락과 각종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이기 위해 창설된 기금으로서, 다양한 자산 매입과 고정금리방식·공통담보 자금공급 조작을 실시하는데 사용
- 일본은행은 현 경기상태에 대하여 담보상태이기는 하나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율 목표 1%를 고수하면서 성장분야에 외화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에도 성장력 강화노력을 주문
 - 일본은행의 성장지원책은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자금을 투·융자하는 기관에 기간 1년짜리 달러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임
- 시장에서는 조만간 자산매입기금의 증액 등 추가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추가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마일산 금리차 축소가 엔고로 반전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과 아직 디플레이 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임
 - 1%의 물가상승율 목표를 설정하기는 했으나 현상태로는 2013년에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자동차 업계, 코스트 절감에 필사의 노력

- 부품메이커들의 수송비·리드타임 절감노력
 - 최근 일본의 완성차메이커들이 큐슈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부품메이커들의 생산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닛산자동차와 도요다자동차 등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한 수주경쟁을 촉진시켜 부품의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있어 부품메이커들로서는 경영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음

- 큐슈 북부지역은 동경과의 거리가 1000km로 중국 상해와 같은 거리이고 부산은 더욱 가깝기 때문에 큐슈 지역으로 이전한 완성차공장에 대한 부품공급을 놓고, 적어도 지리적 경쟁조건 면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에 비해 동등해지거나 오히려 불리해짐
 -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의 부품기업들도 수송비 및 리드타임 절감을 목표로 생산거점을 큐슈의 완성차공장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토요타나 닛산자동차와의 거래확대를 꾀하고 있음
 - 그러나, 코스트 경쟁력면에서 우세한 한국과 중국의 부품기업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품메이커들 스스로가 아시아로부터의 조달을 늘리든가, 아니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부품업계의 이 같은 비용절감책이 한계에 달하는 경우, 부품업계의 도태 내지는 재편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임
- 도요타와 닛산의 부품공동화
- 이러한 가운데 토요타자동차가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신차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발표. 부품공동화가 용이한 세 가지 종류의 플랫폼을 개발
 - 새로운 차대로 생산대수의 50%를 커버, 제조원가를 20% 이하로 줄임.
 - 새로운 개발방식은 카롤라, 비츠, 캠리 등 3개 차종별로 기본구조가 될 새로운 차대를 준비. 다른 차종이라 할지라도 3개의 차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개발기간을 단축
 - 종래는 차종 및 지역별로 부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품의 공동화에 적합한 차대로 통일함으로써 원가를 절감. 토요타가 직접 부품메이커에 발주하는 부품은 4000~5000개 품목.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절반가량 공동화가 가능하게 됨.
 - 또한 동일한 차대에 탑재할수 있는 부품(예를 들면, 엔진부품, 트랜스미션 부품, 와이어 하네스 부품 등)을 세계적으로 통일
 - 개발인원이나 시간도 절감, 금년말까지 개발효율이 2009년 대비 30%개선될 전망
 - 도요타가 이같이 차대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선진국용으로 개발한 차대를 신흥국용으로 전용하는 종래의 개발방식으로는 시장의 니즈에 대응 할 수 없기 때문임

- 한편, نيسان자동차도 새로운 차량설계기술을 도입한 신형차를 2013년 이후 순차적으로 발매할 계획으로 차종에 관계없이 부품을 가능한 한 공통화하여 개발비를 종래보다 27% 절감.
- 신설계기술 도입으로 현재 40%에 그치고 있는 부품의 공통화비율을 최종적으로 80%까지 높일 계획임

□ 소니, 1만명 감축과 「탈TV경영」으로 돌파구 모색

- 소니는 금년중 종업원 약 1만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이는 그룹 전체로 약 6%에 상당하는 인원임
- 화학사업과 중소형 액정사업 재편 등에 따른 50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하고, 국내외에서 약 5000명을 감축할 예정임
- 본사 및 국내외 그룹 각사의 개발, 생산, 간접, 영업부문 등에서 감축할 예정인데 이는 과거 구조조정 시에는 주로 생산거점의 매각, 집약화를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관리부문 등도 포함, 그룹전체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기로 함
- 소니는 주력 사업인 TV부문의 부진으로 금년 3월 결산기까지 4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바, 인원절감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등 성장사업 부문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 사업재편방안으로, 소니는 3월에 일본정책투자은행에 화학사업을 매각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4월 1일자로 도시바, 히타치제작소와 중소형 액정사업을 통합기로 함
- 소니는 금년 3월 결산기에 2200억엔의 적자가 발생, 앞으로도 본업과 상승효과가 적은 사업을 매각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가속화할 방침
- 12일 발표된 소니사의 중기계획에 의하면, 「非TV」 부문에 집중투자, 디지털 카메라와 방송기기 등 디지털이미징, 가정용게임기 등 게임, 고기능 휴대전화와 PC 등 모바일 등 3개 분야에 개발투자의 70%를 집중할 방침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히비야종합설비 외	2011.4.7	에너지절약시스템	베트남/국영기업	빌딩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제공
다이와하우스	2011.4.7	사무처리시설	베트남	직접투자/사무처리센터 설립
닛케	2011.4.7	모직물	말레이시아	직접투자/직물공장 설립
LIXIL	2011.4.10	세시	베트남	직접투자/세시공장 건설
미쓰이부동산	2011.4.10	스마트시티	아시아/구미	투자/6개년계획으로500억엔 투자
토요타	2011.4.10	자동차	이집트/아랍아메리칸비히클	위탁생산/부품수출
칼비/이토쥬	2011.4.10	식료품	중국/정신그룹	자본제휴/4개 합작회사 설립
후지전기	2011.4.11	파워반도체	중국	직접투자/중산을 위한 공장 건설
아이리스오야마	2011.4.11	생활용품	독일/DHL	업무제휴/형광등 리사이클사업
닛산자동차	2011.4.11	자동차	영국	직접투자/중형해치백 생산
동양박	2011.4.11	섬유	미국/독일합섬메이커	생산위탁/전용설비 설치, 에어백용 나일론기포 생산
쇼와셀/태양석유	2011.4.11	석유화학	한국/GS칼텍스	사업협력/석유화학제품의 설비증강계획 참여
로손	2011.4.11	편의점/식품	미국	직접투자/2개 점포 개설
미쓰비시 상사	2011.4.12	LNG	캐나다	자본제휴/중국·한국·영국기업과 LNG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일본전산	2011.4.12	산업용 모터	이탈리아/안살드시스템인더스트리	직접투자/풍력발전용모터 생산을 위한 M&A
다케다약품	2011.4.12	제약	미국/URL파머	직접투자/통풍치료약 생산을 위한 M&A
후지츠	2011.4.12	데이터 관리	중국/광둥성	직접투자/데이터거점 개설
미쓰이 스미 토 모 해상	2011.4.12	보험	인도/막스뉴욕생명	자본제휴/주식 26% 취득
이토쥬상사	2011.4.12	벨브	핀란드/메츠화이버	자본제휴/주식 24.9% 취득
토요다통상	2011.4.12	제약	한국/글로벌뉴로텍파머	판매제휴/총대리점 계약
닛산자동차	2011.4.13	자동차	중국/대련시	직접투자/연산 20만대 승용차 공장 설립
쇼와전공	2011.4.13	흑연전극	중국/사천탄소	직접투자/M&A로 전로용흑연전극 현지생산
미쓰비시레이온	2011.4.13	수처리플랜트	중국/수처리기업	자본제휴/도요다통상 공동출자

* 일본경제신문 발표일자

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 (1) 『쿨저팬 해외전략의 현황과 과제』 경제산업성, 3월31일
*출처: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eisan/cool_japan/010_05_00.pdf
- (2) 『한중일FTA산관학공동연구보고서』 경제산업성, 3월31일
*출처:<http://www.meti.go.jp/press/2011/03/20120330027/20120330027.html>
- (3) 『동일대지진재해 부흥을 위하여』 일본프로젝트산업협의회, 3월31일
*출처:http://www.japic.org/pdf_sys/20120330.pdf
- (4) 『일본의 경상수지적자화와 재정문제』 닛세이기초연구소, 4월3일
*출처:http://www.nli-research.co.jp/report/pension_strategy/2012/vol190/str1204b.html
- (5) 『일본의 국채위기기 어디까지 와있는가』 닛세이기초연구소, 4월3일
*출처:http://www.nli-research.co.jp/report/pension_strategy/2012/vol190/str1204c.html
- (6) 『생산의 해외이전 확대와 국내생산의 과제』 제일생명경제연구소, 4월4일
*출처:http://group.dai-ichi-life.co.jp/dlri/rashinban/pdf/et12_001.pdf
- (7) 『무역수지적자하에서 경상수지 흑자유지 가능성』 다이와종합연구소, 4월7일
*출처:<http://www.dir.co.jp/souken/research/report/japan/sothers/12040601sothers.html>
- (8) 『인프라시스템 수출의 현황 :산업구조심의회·무역경제협력분과회 배부자료』
경제산업성, 4월10일
*출처: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685/pdf/002_04_01.pdf
- (9) 『일본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산업구조심의회·무역경제협력분과회 배부자료』
경제산업성, 4월10일
*출처: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685/pdf/002_05_00.pdf
- (10) 『국내투자의 외수의준도로 본 FTA의 중요성』 제일생명경제연구소, 4월 10일
*출처:http://group.dai-ichi-life.co.jp/dlri/rashinban/pdf/et12_004.pdf
- (11) 『전력공급과 산업구조』 경제산업연구소, 4월10일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2j007.pdf>
- (12) 『일본 국채의 폭락 리스크』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4월10일
*출처:<http://www.murc.jp/report/research/detail.php?i=1465>
- (13) 『위기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의 방향성:산업구조심의회·산업기술분과회·연구개발
소위원회 보고서』 경제산업성, 4월12일
*출처:<http://www.meti.go.jp/press/2012/04/20120411001/20120411001-3.pdf>